

# 코로나19 한파라고?...FA시장, 벌써 293억원 '돈잔치'

허경민 85억원·정수빈 56억원에 두산 잔류

오재일 50억원 삼성행·최주환 42억 SK 계약

이번 겨울 국내 프로야구 자유계약 선수(FA) 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파'를 빚겨간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인해 KBO리그 각 구단들이 관중 관련 수입과 광고 수입에서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구단들이 예년과 비교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탓에 이번 FA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였다. 일각에서 '이번에 FA가 되는 선수들은 운도 없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다. FA 권리를 행사한 16명의 선수 중 7명이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계약 총액이 293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FA 시장은 초반에는 다소 잠잠했다. 1일 김성현이 2+1년, 최대 11억원에 원 소속팀 SK 와이번스와 계약하고, 3일 김용의가 1년 총액 2억원에 LG 트윈스에 잔류한 것을 제외하고는 굵직한 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탐색전을 벌이던 대어급 FA들이 속속 계약하면서 FA 계약 총액 규모는 가파르게 늘어났다.

내야수 최대어 허경민은 원 소속팀 두산 베어스와 최대 7년, 85억원에 계약했다. 4년간 65억원의 조건이고, 4년 계약이 끝난 뒤 선수가 원하면 자동으로 3년 20억원의 계약이 실행되는 '선수 옵션'이 포함된 계약이다.

11일에는 첫 외부 FA 계약이 나왔다. 두산발 FA 중 한 명인 최주환이 SK 와이번스와 4년 최대 42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이어 14일 두산에서 뛰었던 오재일이 삼성 라이온즈와 4년 최대 50억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날 내년에 38세가 되는 베테랑 최형우가 3년 총액 47억원의 조건에 원 소속팀 KIA 타이거즈에 잔류했다.

16일에는 이번 FA 시장의 외야수 최대어인 정수빈이 원 소속팀 두산과 6년 최대 56억원에 계약서에 사인했다.

두산에서 쏟아져나온 FA 영입에 복수 구단이 관심을 가지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됐고, FA 시장이 뜨거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지난 시즌 하위권에 머문 팀들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분위기를 달궜다.



왼쪽부터 오재일, 정수빈, 최주환, 허경민

허경민의 경우 원 소속팀인 두산을 포함해 3~4개 팀이 관심을 보이면서 몸값이 올라갔다. 두산은 무턱대고 거액을 베풀기보다 팀에 애정이 깊은 허경민에 장기 계약을 제시해 마음을 사로잡았다. 선수가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선수 옵션'이라는 묘수가 통했다.

당초 SK는 최주환 영입에 4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지방 구단이 영입 전에 뛰어들면서 2억원 올린 42억원을 제시했다. 최주환에도 3개 팀 정도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재일은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좌타 거포를 필요로 하는 복수의 팀으로부터 관심을 받았고, 몸값이

뛰었다. 삼성 구단이 워낙 공을 들이기도 했으나 결국 높은 금액을 베풀었던 오재일 영입전의 승리 비결이었다.

정수빈의 경우에도 한화 이글스가 4년 40억원을 내밀며 러브콜을 보냈다. 연평균 금액만 따지면 한화의 제시액이 더 높지만, 오재일을 놓친 뒤 정수빈 계약에 힘을 쏟은 두산은 6년의 장기 계약을 제시하면서 정수빈을 붙잡았다.

한 해 FA 계약 총액 규모는 2016년 766억2000만원(21명 계약)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왔다. FA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지적 속에 구단들은 '거품 빼기'에 나

섰다. 지난해 겨울 2020년 FA 19명이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총액은 401억 2000만원에 불과했다.

아직 시장에는 9명의 FA 선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하락세를 보였던 FA 계약 총액 규모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2016시즌이 끝난 뒤 역대 FA 최고 액인 4년 150억원을 받고 롯데 자이언츠와 계약한 이대호가 얼마에 재계약할지가 총액 규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시즌 연봉이 25억원인 이대호를 영입하는 팀은 보상금이 최소 50억원을 내놔야 해 아직 쉽지 않다.

LG 도종 좌완 에이스로 뛰던 차우찬도 아직 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차우찬의 경우 2016시즌을 마친 뒤 4년 95억원에 LG와 계약한 바 있다.

삼성도 잔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 FA 우규민과 이원석도 아직 시장에 남아있다. 2016시즌이 끝난 뒤 우규민은 4년 65억원에, 이원석은 4년 27억원에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또 굵직한 내야수 FA 중 한 명인 김재호가 아직 미계약 상태다.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장을 던진 국내 최고 좌완 투수 양현종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국내에 잔류할 경우 KIA는 큰 돈을 투자할 전망이다. 이러한 계약 총액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미희기자

## “5툴 플레이어”...보라스, 나성범 MLB 세일즈나서

“그는 5툴 플레이어다.”

‘슈퍼 에이전트’ 스포츠 보라스가 자신의 고객인 나성범의 메이저리그(MLB) 입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정확도와 힘, 스피드, 수비, 강한 어깨를 고루 갖췄다는 것이다.

보라스는 16일(한국시간) MLB닷컴 등 미국 현지 언론들과 화상 인터뷰에서 나성범에 대해 언급했다.

나성범은 보라스와 계약을 맺고 빅리그팀들의 제안을 기다리는 중이다.

보라스는 나성범이 최고의 무대에서 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했다. 보라스는 “그는 5툴 플레이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잘 될 수 있다. 좋은 수비수이자 파워를 겸비한 선수”라고 평가했다.

보라스는 구단들이 투수에 비해 야수 영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나성범이 어떤 선수인지 알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면서 어필을 이어갔다.

2013년부터 NC 다이노스 1군에서 활약한 나성범은 통산 937경기에서 타율 0.317 179홈런 출루율



0.384, 장타율 0.542, 2루타 244개, 3루타 25개를 기록했다.

올해는 타율 0.324, 34홈런, 112타점으로 팀의 장단 첫 통합 우승을 이끌었다.

만 31세의 적지 않은 나이와 심자인데 파열로 수술을 받은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MLB닷컴은 “나성범은 2019시즌이 끝난 뒤 MLB행을 노릴 생각이었지만 부상을 당했다”고 했다.

이어 “힘은 여전하지만 수술 후

베이스 러닝은 공격적이지 않다. 올해는 3개의 도루만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보라스는 긴 호흡으로 나성범의 계약을 추진할 생각이다.

보라스는 “많은 팀들이 예산 문제 논의를 끝내지 않았기에 계약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나성범은 다음달 10일까지 메이저리그 30개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뉴스

## 美 칼럼니스트 “김하성, 토론토가 좋아하는 선수”

류현진과 한솔밥 여부 관심 협상 마감일은 내년 1월2일

류현진과 김하성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함께 활약할 수 있을지. 국내팬들을 설레게 하는 장밋빛 전망이 또 다시 등장했다.

MLB네트워크의 존 헤이먼 기사는 17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토론토는 김하성과 연락을 취했다. 김하성은 토론토가 좋아하는 선수”라고 적었다.

존 헤이먼 기사는 “최근 김하성이 토론토 에이스인 류현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면서 김하성이 올 시즌 키움 히어로즈에서 커리어 하이인 30

홈런을 친 사실을 소개했다.

김하성은 포스팅을 통해 빅리그 진출을 타진 중이다. 내년 1월2일까지 계약 의사가 있는 메이저리그 구단들과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김하성을 향한 토론토의 관심설은 그가 포스팅 절차에 돌입했을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조 시엔 토론토 부단장은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하성이 KBO리그에서 보인 활약은 대단하다. 이번 오프시즌 내야수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토는 현재 보 비셋이라는 유격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김하성이 3루수 혹은 2루수로서 충분한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는 듯하다. 비셋이 다른



포지션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뉴스

## ‘방향 끝’ LG 임지섭, 임의탈퇴 해제...1년만에 복귀

“컨디션 빨리 끌어 올리겠다” 의욕



그라운드를 잠시 떠났던 ‘유망주’ 임지섭(25)이 다시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는다.

16일 LG 관계자에 따르면 구단은 전날(15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임지섭의 임의탈퇴 해제를 요청했다. KBO는 이를 승인했다.

LG 관계자는 “17일부터 (2군 구장이 있는) 이전에 합류해 재활 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년 만의 복귀다.

임지섭은 2014년 1차 지명으로 LG에 입단했다. 시속 150km의 빠른 볼을 뿌리는 좌완 파이어볼러에 구단은 큰 기대를 걸었다. 출발도 좋았다.

임지섭은 프로 첫 경기였던 2014년 3월30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에서 승리를 따냈다. 역대 네 번째 고졸 신인 투수 데뷔전 승리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잠재력이 터지지 않으면서 2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1군 통산 성적은 22경기 2승6패 평균자책점 7.49.

지친 임지섭은 야구로부터 마음이 떠났다.

결국 LG는 지난해 11월 임지섭을 임의탈퇴 선수로 묶었다. 당시 LG는 “임지섭은 본인이 투수로서 한계를 느껴 당분간 휴식을 가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단은 선수 본인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알렸다.

야구장 밖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낸 임지섭은 지난해 중순 구단에 복귀의사를 전했다.

구단도 그동안 임지섭의 행적을 계속 쫓고 있었다. LG 관계자는 “심리적으로 힘들어해서 잠시 쉬고 싶어 했던 선수다. 복귀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11월말부터 구단과 임의탈퇴 해제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곧 최종 결정이 됐다.

구단에 따르면 임지섭은 그동안 창원에 내려가 지내며 근처 고등학교에서 캐치볼 등을 해왔다. 8월부터는 웨이트 트레이닝 등의 가벼운 개인 운동을 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체능을 갖추고 있었던 데다,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훈련을 통해 다시 기량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LG 관계자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선수다. 재활을 잘 마치고 회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임지섭도 빨리 컨디션을 끌어 올릴 것이라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 11호골 득점 공동선두 오른 손흥민, 팀내 2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리그 11호골(시즌 14호골)을 터뜨리며 득점 부문 공동 선두에 올랐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선 통산 99번째 골이다.

손흥민은 17일 오전 5시(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벌어진 리버풀과의 2020~2021 EPL 13라운드

에서 선발 출전해 0-1로 뒤진 전반 33분 동점골을 터뜨렸다.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로 리그 11번째 득점(4도움)이자 시즌 14호골(7도움)이다.

이날 선제골을 넣은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도미니 칼버트-르윈(에버턴·이상 11골)과 리그 득점부문 공동

선두에 올랐다.

손흥민은 0-1로 뒤진 전반 33분 역습 기회에서 지오바니 로 셀소의 침투 패스를 받아 침착한 오른발슛으로 리버풀의 골망을 흔들었다.

주심은 비디오 판독(VAR)을 통해 오프사이드 여부를 확인했으나 정상적인 플레이로 인정했다. 후반에는 적극적인 패스로 동료들의 기회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1-2로 패하면서 선두 자리를 리버풀에 넘겨줬다.

유럽축구통계전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7.5점을 부여했다. 토트넘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이다. 팀 내 1위는 슈퍼세이브를 여러 차례 선보인 골키퍼 위고 요리스다. 8점을 받았다.

뉴스